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 열린다

범국민대회준비위, 1월 29일 기자회견서 계획 발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장에서 범국민적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준비위원회(공동운영위원장 김경민 · 김전승, 이하 범국민대회준비위)는 1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 추진 계획을 밝혔다.

3.1운동 100년을 기념하고 한반도 평화로 나아갈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열리는 '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는 오는 3월 1일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광화문광장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된다.

대회는 오롯이 시민사회의 힘으로 치러진다. 종교계에서는 불교를 비롯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소속 7개 종교가 모두 참여하며, 시민단체에서는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단체들이 대거 동참한다. 또한 여성계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가 함께하며, 노동계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뜻을 같이 한다.

'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는 종교와 성 · 계층 · 지역 · 세대 · 정파를 망라해 민족 통합과 평화를 지향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대회는 총 3부로 구성된다.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하는 1부에서는 33인의 기미독립선언문 낭독과 시민합창단 공연, '남북 평화의 떡 나눔 잔치'가 열린다. '남북 평화의 떡 나눔 잔치'는 한반도 팔도의 명물 특산품 떡 3만 명분을 준비해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하며, 서울 · 평양 · 판문점에서도 동시에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하는 2부에서는 남과 북, 해외 인사들의 영상메시지 상영과 '3.1운동 100년 범국민선언문'이 발표된다. '3.1운동 100년 범국민선언문'은 현재 윤경로 한성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종교계 · 역사학계 ·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초안을 마련 중이다. 초안이 완성되면 종교 · 성별 · 정치 성향 등을 고려해 각계 인사 100인을 위촉해 숙의 토론 후 선언문을 확정할 예정이다.

불교 등 각계 1000여 단체들 참여
3월 1일 광화문광장서 대회 개최
3부 구성… 100주년 선언문 발표
원행 스님 "3월1일 광장서 만나자"



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준비위원회가 1월 29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축사를 통해 '3.1운동 100년 범국민대회'의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오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열리는 3부 행사에서는 시민과 함께 화합과 평화의 의미를 다지는 '만북울림'과 영산줄다리기(국가무형문화재 제26호)가 진행된다. '만북울림'은 풍물과 북을 울리며 세종대로를 행진하는 행사로 시민 참가단 8천여 명이 함께 하며, 대회 마지막 순서인 영산줄다리기는 세종대로와 서울시청 앞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축사를 통해 3.1운동 범국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원행 스님은 "3.1운동은 뭇 생명의 자주와 독립을 밝히는 선언이자, 온 세상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원이었다. 낡고 오래된 체제와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깨달음의 사자후였다"면서 "3.1 운동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임시정부의 수립이 이어졌다. 모든 국민들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소중한 역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종교인들은 시민사회 여러분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겠다. 3월 1일 광화문 광장에서 손에 손을 맞잡고 힘찬 북소리에 흥겹게 춤추고 환호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자주 독립선언이자 세계 인권 선언인 3.1운동의 참된 뜻을 새겨야 한다. 3.1운동 10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는 물론 인류 평화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도 "한국 주요 종교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3.1운동 100주년 범국민대회가 식민과 분단의 어두운 그림자를 거둬내고 자주와 해방 민주와 평화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범국민대회준비위는 범국민선언문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우리는 한반도가 영구적 평화지대임을 선언한다'는 시대정신을 선언문에 담겠다"고 천명한 준비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다시 광장에 모이고자 한다. 운동의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분단의 상흔과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한반도 평화를 선언하려 한다"며 "3.1운동의 가치를 기억하고 국민 화합과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대회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우리 모두 죄인… 노동인권 관심을"

故김용균 노동자 유족 예방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 강조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비정규직 발전 노동자 사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고인의 유족 및 故김용균사망사고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의 예방을 받고, "구조적 모순이 해결돼 다시는 용균이 같은 일이 나오지 않도록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故김용균 노동자는 지난해 12월 11일, 컨베이어 사고로 숨졌다. 고인의 유족 및 시민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진상조사가 실제로 이행되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이 이뤄질 때까지 故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이 같은 상황서 故김용균(24) 노동자의 영혼만이라도 위로하자는 취지로 1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서 49재를 봉행했다. 또한 1월 31일, 서울 조계사서 광화문 분향소와 단식농성장을 거쳐 청와대까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즉각 정규직 전환 등을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진행한 바 있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원행 스님에게 "1년에 약 2500명이 안전장치 없이 죽어간다. 용균이는 수많은 죽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엄청난 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비정규직 발전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부에 말씀을 전해주길 청한다. 부디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원행 스님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죽음이지만 나 역시 이전까지 잘 알지 못했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며 "불교계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 알리는 데 마땅히 목소리를 내야 한다. 사회부와 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정규직화가 이뤄지고 고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김지원 기자


원행 스님이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위로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돕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복동 할머니 입관식 조계종 사노위가 봉행

고인의 뜻 따라 불교식 장례

일본군 '위안부'의 상징인 故김복동 할머니가 향년 93세로 타계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서 고인의 입관식을 봉행했다.

사노위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수년간 동참하면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교류하게 됐다. 이 인연으로 정대협은 독실한 불자인 故김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사노위 측에 불교적 입관식을 주관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사노위는 "고인은 다라니경전과 염주를 관에 함께 넣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며 "국제사회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할머니의 뜻에 따라 일본 정부가 공식 사과를 할 때까지 사노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약속 지킨 동국대… 청소노동자 전원 '직접고용'

1월 30일 직원증 수여식 개최
2월 1일로 97명 정규직 전환
자광 스님 "주인의식 가져달라"
"감사 또 감사… 최선 다할 것"

동국대(총장 보광)가 지난해 청소노동자들과 합의한 '직접고용' 약속을 지켰다.

동국대는 2월 1일자로 97명의 청소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앞서 1월 30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이를 기념해 '동국대 직접고용 미화근로자 직원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총장 보광 스님과 청소노동자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자광 스님과 보광 스님은 대표 10명에게 단주와 직원증을 직접 나눠주며 동국식구가 된 것을 격려했다.

동국대의 청소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은 지난해 4월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것이다. 지난해 1월 29일부터 동국대 청소노동자들은 파업에 들어갔고,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월 24일 86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당시 동국대는 청소노동자들과 '직접고용'을 약속했고 지난해 9월부터 학교 측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한국노총 한국철도 · 사회산업노동조합 등이 포함된 '미화근로자 직접고용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해 왔다.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2월 1일자로 직접고용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직원증을 수여하고 있다. 이사장 자광 스님은 단주를 직접 하사했다. 동국대 청소노동자 97명 전원은 2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직원증 수여 직후 자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청소노동자들은 학생 · 교수 · 교직원이 떠난 자리를 정리하고 지켜주는 안주인"이라며 "더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고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보광 스님은 "전원 정규직 전환은 학교로서는 큰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이제는 과거 일은 잊고 동국 가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맡은 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소노동자들도 직접고용의 약속을 지킨 학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오종익 서울일반노조 동국대시설관리분회장은 "학교 측의 결단에 감사하다. 당시에는 그것이 맞는 일이라고 봤다.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청소노동자들은 정년이 65세이며, 이후 촉탁직으로 최대 71세(현재 만 61세 이상자부터 해당)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전환자의 복리후생은 학교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 사립대학이 용역업체 청소노동자들을 대규모로 직접 고용한 사례가 적었던 만큼, 앞으로 동국대의 직접고용 사례가 모범이 될 전망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학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화합과 상생 차원에서 청소노동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